

세종대왕: 임금님이 된 책벌레 왕자

글 | 이한

그림 | 강아람

글 | 이한

그림 | 강아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충녕 대군은 조선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왕 태종이고 어머니는 원경왕후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충녕 대군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충녕 대군에게는 형, 누나가 여러 명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첫 번째 왕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녕 대군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충녕 대군은 악기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즐거운 것은 책
읽기였습니다!





어느 날, 충녕 대군은 병이 났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걸 본 태종은 병이 낫지 않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태종은 충녕 대군의 책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책을 돌려주세요!” 충녕 대군이 부탁하자 태종은
말했습니다. “몸이 다 나으면 돌려주겠다.”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충녕
대군은 몹시 슬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권의 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녕 대군은 몰래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책을 돌려주었고, 충녕 대군은 행복했습니다.



책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옛날과
지금,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녕
대군은 이것들을 모두 읽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충녕 대군은 궁궐 밖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가서 아버지 태종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세요.”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충녕 대군의 말을 들은 태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녕 대군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상냥하구나! 다음의 왕으로 충녕 대군이 좋겠다.’



충녕 대군은 세자가 되었고
아버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과 그 안에 담겨 있었던 훌륭한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임금님이 된 책벌레 왕자”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